

2017년 9월 24일 주일설교
와싱턴한인교회 김한성 목사

지금 어떤 옷 입고 계십니까?

로마서 13:11-14

오늘 본문은 ‘옷 입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 멋진 옷을 입었다고 으시대지만 사실 별거벗고 활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의 옷을 입고, 학벌의 옷을 입습니다. 남편/아내, 부모/자식의 가족자랑의 옷을 입습니다. 지금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과연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 한 번 살펴 봅시다. 잘 차려 입었는 줄 알았는데, 교만과 잘남, 한 껍질 벗고 나면 알 몸이 아납니까? 별거숭이 임금님처럼, 나만 모르고, 내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잘 입는 분은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잘 아는 분입니다. 본문은 옷 입는 비결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때’에 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로마서 13:11) 성서는 때, 하나님의 시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을 나만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마태복음 24:36)

오직 한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42,44)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준비하고 있어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내 살아 생전에 오실까 방심하지 마십 시오. 또 오늘 주님 오시면 어쩌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령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는 옷을 잘못 입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옷을 잘못 입는 분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로마서 13:12) 잘못 입는 분들은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빛나는데도 잠옷만 입고 있는 분들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저 어둠의 자식으로 편하게 삽니다. 어둠 가운데 깊이 파묻혀 있을 때는 벗어도 벗은 줄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이 아예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납니다. “그 [말씀/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4)

우리가 말씀의 빛에 노출되면, 더 이상 아무 것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았던, 나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추려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19-21)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 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음과, 그 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옷을 갈아 입을 시간입니다. 어둠의 잠옷을 벗고, 빛의 새옷을 입으세요. 죄의 잠옷을 벗고, 은총의 새옷을 입으세요. 불평의 잠옷을 벗고, 감사의 새옷을 입으세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루 종일 만났던 분들과 나눴던 대화를 되새겨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대화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직도 잠옷입고 계신겁니다. 감사 할 때만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옷을 좀 바꿔 입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3:14) 한번 주님 옷, 그리스도 옷 입으셨으면, 이제 절대로 벗지 마세요. ‘저는 그리스도 옷만 입는 단별 신사/ 단별 숙녀입니다!’ 주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분명한 금긋기를 할 때 비로서 시작 됩니다. 거추장스런 세상 옷 벗고 예수 옷 입을 때 비로서 희망이 첫 단추를 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옷 입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옷만이 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옷만이 내 가정에 기쁨입니다. 예수 옷만이 우리 일터와 공동체의 소망입니다.이런 귀한 고백이 여기 저기서 터져나오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속회자료]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413 장

기 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13:11-14 절을 읽습니다.

말씀묵상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 1) 때와 장소에 잘 맞지 않는 옷차림 때문에 민망하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2)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 3) 잠옷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 한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해 보세요.
- 4) 사랑하는 속회 식구들과 기도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176 장

주기도문